



제65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8월 21일)

## 돌로 쌓은 무덤, 무덤에 담은 마음

장은정, 105호 고구려실 18:00~18:30

고구려의 무덤은 오늘날 중국의 환인, 집안시 일대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및 황해도 일원에 분포합니다. 강돌이나 다듬은 산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무덤[積石塚]과 커다란 판석으로 무덤방을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돌방무덤[石室封土墳]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돌무지무덤에서 점차 돌방무덤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고구려 무덤의 변천은 기원전 3세기기부터 3세기까지 돌무지무덤이 축조되어 중국과 구별되는 고구려 무덤의 독자성이 발현, 유지되는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무기단식에서 기단식, 계단식으로 외형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정형성을 띠어가는 이 시기 돌무지무덤의 변화는 고구려가 중국과 구별되는 문화 전통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성장해 갔던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이후 4~5세기에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합장용의 돌방무덤과 무덤벽화라는 새로운 무덤 형식을 받아들여 기존의 돌무지무덤과 공존, 결합하면서 여러 형식의 무덤이 병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규모나 묘역 시설 등에서 월등한 초대형 돌무지무덤이 축조되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의 벽화 무덤은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의 높은 정치, 문화적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6세기 이후로는 앞 시기에 받아들인 돌방무덤이 고구려 전 영역에서 축조됨으로써 묘제에서 제일성이 확립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구려 지배층의 무덤 축조에는 많은 사회적 공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 통구분지 상에 위치한 대규모 고분군인 통구 고분군은 이를 잘 보여 주는 예입니다. 이들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국 금나라의 황제릉으로 여겨졌으나, 19세기 말 광개토왕릉비가 소개되면서 초대형 장군총과 태왕릉 등을 고구려 무덤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입지나 규모면에서 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묘역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최고 지배층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 초대형 돌무지무덤인 태왕릉과 천추총의 무너진 돌무지 속에서 한쪽 측면에 글자를 돌을 새긴 벽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원하옵건대 태왕릉이 산처럼 안전하고 뒤편처럼 튼튼하소서], 千秋萬歲永固[(무덤이) 천추만세토록 영원히 튼튼하소서], 乾坤相畢[(무덤이) 하늘과 땅이 다할 때까지 [튼튼히 보존되소서]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벽돌들에는 축조 당시 무덤이 오랫동안 보존되기를 기원하는 고구려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 19세기 화가, 윤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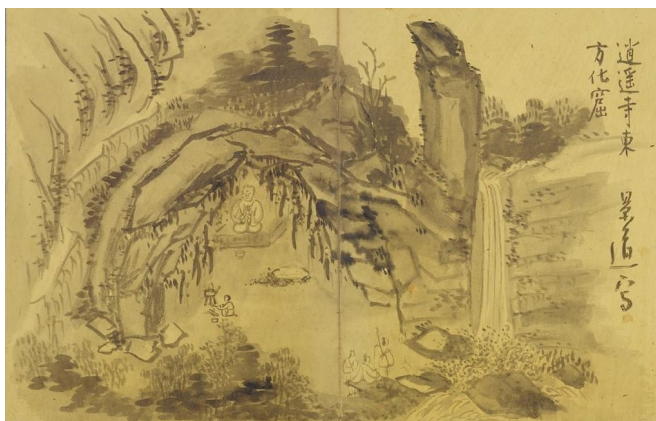
문동수, 특별전시실 18:00~18:30

이방운, 윤제홍, 이의성 등 19세기 전반 문인화가들은 18세기 활약한 정선, 강세황, 심사정, 이인상 등의 필묵법과 남종화풍을 전범으로 삼아, 또 다른 개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붓 대신 손가락을 창작도구로 이용해 대담한 구도와 파격적인 화풍을 이룩한 학산 윤제홍尹濟弘(1764-1844 이후)을 가리켜 1973년 최순우는 ‘파격적인 자기 양식을 세운 소중한 작가’로 평가하였습니다.

1812년경에 그린 《학산묵희첩鶴山墨戲帖》이 그렇게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그의 그림은 대체로 구불거리는 짧은 선을 이용하여 사물의 요체를 성긴 듯하면서 활달한 느낌을 주며, 간략하고 파격적인 구도에 운택한 먹을 사용하여 수채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윤제홍은 실경을 바라보거나 보여지는 대상에 따른 프레임을 자유롭고 감각적으로 조종해가며, 선과 면, 농담묵과 담채 등을 활용하여 형상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실경이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도 있지만 실경의 요체와 정수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푸른 기운이 도는 듯한 감각적인 먹의 운용, 지두화법과 지두서법의 결합, 일점투시법과 파격적인 구도 등을 과감하게 시도하였습니다.

그의 지두화법은 부드럽고 유려한 맛은 덜하고 상대적으로 날카롭고 둔중하지만 붓의 필선보다 훨씬 강한 표현력을 띠니다. 따라서 그의 화법은 “마치 청초淸初에 중국 화단의 양주팔괴가 이룩했던 혁신적인 미술운동에도 비길 수 있는 깊은 의의를 지녔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동시에 “이조 후기 화단에 비로소 빚겨진 근대 양식의 먼동이었다”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제홍, 방화굴, 학산묵희첩 중, 1812년, 지본수묵, 각 26.2x48.0cm, 개인소장

제65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8월 21일)

## 고려에 온 외국 사람들

강민경, 113호 고려I실 19:00~19:30



시를 새긴 청자 완盪, 개성 출토, 송, 지름 15.2cm, 덕수2357. 이와 거의 같은 작품이 중국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区의 서하西夏 유적에서도 나왔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의 수가 14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을 보는 건 드문 일이 아니지만, 때로 이들은 낯선 모습과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다른 나라 사람을 어떻게 여겼을까? 시겟바늘을 돌려 고려로 떠나보겠습니다.

개성의 고려 무덤에서는 송宋이나 금金, 원元에서 만들어진 그릇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상품이 오가면 사람도 같이 오갑니다. 『

고려사』를 보면 중국 출신 상인들과 고려 사람들이 생활에서 맞부딪힌 이야기가 꽤 보입니다. 상인만이 아닙니다.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중국 출신 인재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광종光宗으로 하여금 과거제를 도입하게 한 쌍기雙冀가 대표적입니다. 최승로崔承老는 광종이 중국의 진짜 재주 있는 사람들은 데려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만, 중국 출신 인물들을 씬으로써 고려 제도와 문화가 크게 정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거란·여진과의 교류도 빈번하여, 거란 장인들이 고려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곤 했고 여진인들이 고려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받아들여 살 곳을 마련해주고 관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리아Korea’가 ‘고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유명합니다. 이는 고려의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드나들던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 전해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고려사』에도 회회回回, 곧 아라비아 사람들이 팔관회에 참석하여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몽골, 위구르인들이 들어와 살았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고려가 이들을 배척했다는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수禽獸라 칭했던 거란이나 여진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일단 고려에 들어오면 고려 사람으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갔습니다. 중국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갔던 고려 사람들, 그들의 후예인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 스스로 되짚어보게 됩니다.



제65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8월 21일)

##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7) 사후 세계로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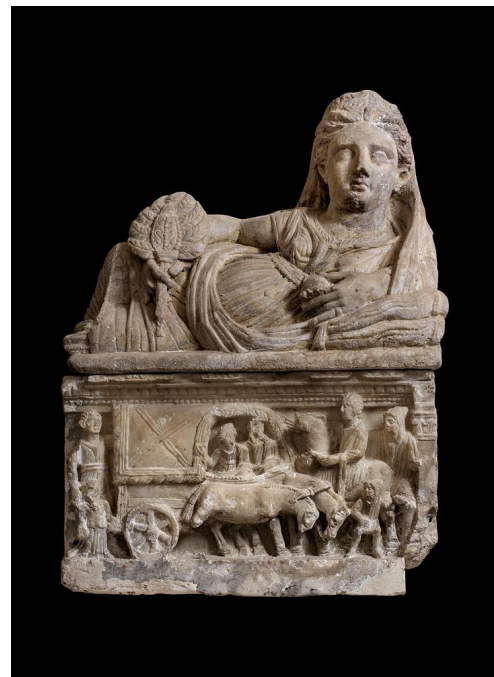
노회숙, 기획전시실 19:00~19:30

볼테라에서 발견된 유골함은 사후 세계로의 여행에 대한 개념이 에트루리아인들의 상상력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볼테라는 설화석고의 채취로 유명하며 에트루리아의 12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설화석고로 제작된 유골함에는 그리스 신화, 사후 세계로의 여행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이 설화석고를 발견한 것은 기원전 8세기였으나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기원전 3세기경이었습니다.

‘여행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은 지붕이 달린 이륜마차를 탄 부부가 사후 세계로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쌍의 노새가 끄는 마차 앞에는 말을 탄 사람이 부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차 뒤로는 성인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장례행렬을 뒤따르고 있는데, 이는 마차를 타고 사후 세계로 떠나는 전형적인 장면으로 볼테라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유골함 뚜껑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연회에서처럼 왼쪽으로 누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후 세계 문이 묘사된 유골함’은 유골함 양 측면에 사후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골함의 앞면 중앙에는 네 마리 말의 고삐를 쥐고 있는 여성 신령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돌고래 2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반트와 카룬이 저승으로 이끄는 죽은 이의 영혼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마차나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승의 문은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돌아가지 못하는 지점을 상징합니다.



여행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 기원전 2세기 말, 석관 높이 33.0cm, 뚜껑 높이 44.0cm,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